

# 주먹밥 대신 김밥·커피 선결제...탄핵집회로 이어진 5·18 대동정신

### MZ세대 색깔 있는 목소리 '눈길' 촛불 대신 응원봉·노래는 최신곡 전 세대 아우러진 '문화의 장'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연일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지역 1020 세대가 거리로 나서면서 탄핵집회가 과거 '투쟁' 일변도에서 개성있는 의견표출의 광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44년 전 광주에서 피진 희생, 나눔, 봉사 등의 대동정신은 여전했다.

◇세대를 뛰어넘는 대동정신=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인 현혈과 주먹밥 나눔 등 대동정신이 탄핵집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탄핵집회가 열릴 때마다 추운 날씨에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집회 현장 인근

카페와 식당 등에 선결제를 하고 "마음껏 나눠 드시라"는 글이 SNS에 올라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지난 8일 충장로의 분식집에 김밥 50줄을 선결제했다.

A씨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7일 국회 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감기에 걸려 다음날 시위에는 나가지 못하게 돼 이렇게라도 연대하고 싶었다"며 "서울에 살지만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김밥이라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한 시민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김밥 가게에 김밥 100줄을 선결제 한 뒤, 'X(옛 트위터)'에 "김밥집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무료로 김밥을 드시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김밥 100줄은 3시간만에 모두 동이 났다.

5·18민주광장과 가까운 충장로의 카페에도 선결제를 하겠다는 전화가 쇄도했다.

서울에 사는 정우씨도 지난 7·8일 이틀간 충장로의 한 카페에 커피 102잔과 빵 16개를 선결제했다.

정씨는 "고향인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이고, 언제나 앞장서 목소리를 냈던 의미있는 지역"이라

며 "추운 날씨 거리로 나온 시위 참가자들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탄핵이 될 때까지 함께 맞서 싸우자는 각오로 커피 나눔을 했다"고 설명했다.

◇'탄핵 촉구' 한 마을=탄핵 촉구 집회 현상이 남녀노소 전 세대가 아우러지는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성세대 뿐 아니라 2030 젊은 세대, 책가방을 멘 10대 학생까지 집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최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정다빈(여·23)씨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투표권을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여 소리내고 싶어 시위에 나왔다. 당일 비가 왔는데도 '옛날에는 총알이 떨어졌는데 이젠 비 떨어지는데 대수냐'며 모두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나온 수피아어고는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의 등장인물 '은숙'이다니던 학교고, 모교인 전남대는 5·18 역사의 살아있

는 현장"이라며 "선배들이 피로 지쳐낸 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에서 나온 자란 김현중(31·서울 용산구)씨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 김씨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일에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선의와 연대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국민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성세대는 성숙한 정치, 완성된 민주주의를 젊은 세대에 물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미안해 하면서도, 고마워했다.

9일 5·18민주광장 집회 현장에서 만난 오경진(여·52)씨는 시위 현장에서 젊은세대를 보며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오씨는 "비록 우리 정치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래 세대의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웃어보였다.

◇개성 표출 탄핵집회=최근 탄핵 촉구 집회는 기존 집회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이돌 응원봉과, K-POP 대중가요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8일 이들 사이 5·18민주광장과 서울 국회의사당 등지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는 촛불 대신 밝은 빛을 내는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온 젊은 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응원봉 외에도 수유등부터 촛불보양 전구, 크리스마스 전등까지 빛이 나는 물건이라면 가리지 않았다.

어린 아이와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가족단위 집회 참가자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돗자리와 방석 등을 깔고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먹고, 시위 참여인 증상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마치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음악도 달라졌다. 스피커에서는 '삼국사', '동지개', '바위처럼' 등 젊은층이 잘 모르는 민중가요 대신 로제의 '아파트(APT.)', 소녀시대의 '다시만남의 세계' 등 대중가요가 흘러나왔다. KIA타이거즈 소속 야구선수 소크라테스의 응원가 가사를 '탄핵'으로 넣어 바꿔 부르는 등 재미 있는 선곡도 이어졌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한동훈·한덕수 제2의 쿠데타 중단하라”

###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원로들 전일빌딩245서 시국선언 발표

광주·전남에서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참여했던 광주지역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9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전일빌딩 245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한동훈과 한덕수는 제2의 쿠데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로들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현정 중단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뿐"이라며 "야합을 통해 권력 장악을 꾀하는 한동훈과 한덕수 역시 체포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연석회의" 지도자들도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포고령은 80년 5·17 계엄포고령을 따라 만든 '쌍둥이 포고령'으로,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이 12·3 계엄을 통해 전두환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꾀했다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탄핵·즉각 구속, 내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석회의 지도자들은 "12·3 포고령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 활동까지 금지했다는 점에서 더 위험적"이라며 "특히 이번 계엄을 주도한 방첩사에 5·18의 원흉인 전두환의 사진이 걸려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말은 새빨간 거짓임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지역 종교 지도자, 오월단체 대표, 대학 총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육감, 자치구 청장, 광주시의회의원,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종교 지도자, 오월단체대표, 대학 총장, 시민단체 대표 등이 쌍둥이 포고령, 대통령 탄핵, 책임자 처벌 촉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지역 시민·종교단체의 시국선언도 이어진다. '윤석열퇴진 광주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만 진행하기로 했던 시민 총궐기대회를 오는 13일까지 매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국 성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 광주·전남기독교교회협의회는 10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광주YMCA 2층 무진관에서 '시국기도회'를, 또 천주교광주대교구는 12일 오후 7시 남동성당에서 천주교 시국미사를 갖고 시가 행진을 열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방의원들도 삭발·단식 등을 강행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12·3 내란 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 민주당 광주 지방의원 행동선언'을 열었다.

민주당 소속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목숨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윤석열의 정신 나간 행동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며 "군대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주권자 국민을 공격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이날 삭발식도 진행했다. 삭발식에는 서용규 광주시의원, 문선화 동구의원, 안형주 서구의원, 신중영 남구의원, 오영순 남구의원, 정달성 북구의원, 김영순 북구의원, 박해원 광산구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이날부터 '탄핵 촉구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전남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잠재우고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국민의 외침대로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하는 것뿐"이라며 "도의회 민주·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일동은 윤석열 퇴진 또는 탄핵 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기자회견 뒤 신민호(민주·순천6) 의원을 시작으로 무안군 남악읍 도청 앞 사거리에서 하루에 4명씩 단식에 들어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윤 지지율 17.3%

국힘 26.2%·민주당 47.6%   
 리얼미터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3%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25.0%)보다 7.7%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79.2%로 일주일 전 조사(71.0%)보다 8.2%p 올랐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리얼미터가 일간 500명 지표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5일 19.1%, 6일 15.5%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26.2%, 더불어민주당이 47.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1%p 하락했고 민주당은 2.4%p 오른 수치다.

2016년 당시 여론조사는 3주차 무선 전화면접(18%)·스마트폰앱(40%)·무선(27%)·유선(15%) 자동응답 혼용으로 진행됐고, 4주차 무선 전화면접(20%)·스마트폰앱(40%)·무선(25%)·유선(15%) 자동응답 혼용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주차 95%신뢰수준 ±1.9%p, 4주차 95% ±2.5%p였으며 응답률은 3주차 12.2%, 4주차 12.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분리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계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진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복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당 회사는 2024년 12월 05일 임시주주총회(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지**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신천길 64-8  
청산인 박종희

**분할합병공고**

2024년 12월 9일 각자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마루테크(이하"갑")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하랑정보통신(이하"을")과 분할합병("갑"의 정보통신사업부분의 권리와 부속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로부터 1개월내로 주주총회(제1차)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총회(제1차) 등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0일  
**"갑" 주식회사 마루테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사라리길 31-1 (성정동)  
대표이사 이준봉  
**"을" 주식회사 하랑정보통신**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24길 21-7(신방동)  
대표이사 김진주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선진(21224-1XXXXXX)  
• 최후주소 :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촌길 63-1 (송산리)  
• 등록기준지 :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525번지  
피상속인 망 김선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기가정법원 해남지원 2024년 11월 14호로 신청하여 2024년 12월 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 반채권자와 상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 및 승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10일  
상속인 : 김천오(710205-1XXXXXX)  
군산시 상지곡1길 45-4, 403호 (지곡동, 리리빌)  
• 신고기간 : 2024. 12. 10. ~ 2025. 2. 1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천오의 주소

**光州日報** **지역안내**

**북구**

- 통 266-1920 • 문 266-1900 • 복광동 525-3761
- 신 222-8171 • 영 신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유 신 433-1503

**동구**

- 남 경 673-6836 • 동 명 222-0054 • 동 부 225-6001
- 중 영 222-0054 • 중 정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허 675-60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문 신 372-2352 • 서광동 369-1625
- 은 천 376-7153 • 지 경 376-6611 • 동 영 803-0311
- 화 경 369-1625

**광안구**

- 문 남 952-1687 • 복 국 959-1920 • 천 원 973-2900
- 허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일 72년

**光州日報** **네이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